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7월 5일

CUOMO 주지사, SANDY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 거주 기간 연장 발표

뉴욕주에서 임시 보호소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30일 연장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뉴욕주의 요청에 따라 임시거처지원(TSA) 프로그램의 기간을 7월 7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기간 연장으로 초강력 태풍 Sandy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호텔 또는 모델에 계속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SA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새로운 체크아웃 날짜는 2013년 8월 6일입니다. FEMA는 연장 대상 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체크아웃 날짜를 통지할 것입니다.

"임시거처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함으로써 우리는 몇 달이 지나도 아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수퍼폭풍 Sandy의 피해자들을 위해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폭풍으로 인한 피해의 끔찍한 효과를 아직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장기 숙소 계획을 마련하는 동안 가족들을 호텔에 배치하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TSA 대상자가 되려면 먼저 다음 방식으로 FEMA를 통해 연방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www.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 FEMA 앱을 사용하거나 m.fema.gov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등록, 또는
> 800-621-FEMA(3362)(TTY 800-462-7585)에 전화하여 등록. 711 또는 비디오 릴레이 서비스(VRS)를 이용하려면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